

보도 일시	2022. 1. 27.(목) 15:00	배포 일시	2022. 1. 27.(목) 09:00
담당 부서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책임자	과장 김명진 (044-203-2881)
		담당자	사무관 안미진 (044-203-2885)

## 카지노산업 발전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

- 업계 경영 안정화 지원과제 발굴, 카지노 정책 현안 등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월 27일(목) 오후 3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지난해 전국 17개 카지노사업장의 영업 매출액은 2019년도 대비 59.7%가 감소\*했고, 이 중 6개 사업장은 전년도에 이어 현재까지도 휴업을 계속하고 있는 등 카지노업계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외국인 전용 카지노(16개소) 71.9% 감소, 내국인 카지노(1개소) 47.7% 감소\*\*

\*\* '19년도 대비 '21년도 매출액 증감률('21년도 매출 가 정산)

문체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카지노업계의 경영 안정화에 관한 지원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민관협의체 발족에 앞서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를 통해 카지노업계의 애로와 건의 사항 등을 수렴했는데 이번 첫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한다. 2차 회의부터는 사업자들도 직접 참여해 함께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카지노산업은 물론 마이스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카지노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기한 유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올해도 관련 정책을 이어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카지노산업,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외화 획득,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규제 대상이 되어왔지만, 지금은 지원이 절실한 시기다.”라며, “이번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업계가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 개요**

-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카지노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관계 구축
- (구성) 문체부, 업계·학계·법조계 등 10여 명 내외
- (역할) 카지노업 경영안정화 지원과제 발굴, 해외 정책사례 조사, 카지노 정책 현안 논의 등

**□ 위원 구성 (1차 회의)**

분야	성명	소속 및 직위
문체부	이승재	관광산업정책관실 융합관광산업과 카지노정책팀장
전문가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학계	김상혁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고동완	경기대학교 관광학부
업계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김성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김성호	인스파이어 부사장
법조계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안건에 따라 민간위원은 변경 가능

**□ 주요 일정**

- 분기별 1회 개최(필요 시 수시 개최)

\* 1차 회의 : 1. 27.(목) 15:00/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대회의실